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제34회 호렙산 기도회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라
 6.6~7.15
 매일새벽 4:45



중부아프리카 선교허브 <잠비아광림미션센터>

2022년 6월 15일(수) 잠비아 루사카 현지에서 기공예배 드려

광림교회는 6월 15일(수) 오후 4시 잠비아 루사카에 위치한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건설 현장에서 기공예배를 드렸다. 미션센터는 총 4000여 평의 부지에 채플, 의료센터, 교육센터, 게스트 하우스 등 총 5개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정석 감독은 2017년 있었던 중남부아프리카 선교사대회를 후원하며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고, 2018년 잠비아를 방문해 한인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선교지를 둘러본 후 선교의 방향을 정하게 되었다. 잠비아는 8개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으며 신공항 건설 및 영어 사용으로 중부 아프리카 선교의 허브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특별히 잠비아는 에이즈와 조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2019년 월드비전을 통해 잠비아를 다시 방문한 김정석 감독은 수도 루사카 외에 지방도

시를 방문하며 조혼으로 인한 피해 소녀들, 에이즈 가정 등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잠비아에 선교를 결정했다.



교육센터와 선교 교류 연합의 장
 미션센터의 역할은 선교 허브로서 중부 아프리카 선교사들의 교류와 연합의 장으로 쓰이길 기대하고 있다. 이곳에 교육센터와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해 신학교육,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및 주변국 선교사들의 쉼과 안식, 친교의 장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선교 방향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사역보다는 교파를 초월해 한인 선교사들이 세운 선교기관들과 협력하는 선교를 할 예정이다. 기공 예배를 드리는 당일에도 잠비아 선교사 거의 모든 가정들이 참석했으며, 센터의 범인을 설립하고 부지를 구하기까지 많은 선교사들의 도움이 있었다.

여성들의 직업교육과 생활 인식 개선
 미션센터의 주요한 사역 중의 하나는 에이즈 치료와 생활 인식 개선이다. 미국 연합감리교회(UMC)에서 센터가 완공되면 의료 전문 선교사와 교육 전문 선교사를 파송해 협력선교를 하기로 했다. 많은 나라에서 의약품을 기증하지만, 에이즈 치료에 대한 두려움, 또는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치료를 받지 않거나,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

다. 조혼도 마찬가지이다. 13세 이하 소녀 결혼하는 것도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여성을 재산으로 보는 풍토 속에서 아직도 작은 마을에서 조혼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센터는 일반 교육과 직업 교육을 통해 소녀들이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

-->3면에 계속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마태복음 4장 11절)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 회당은 학교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글을 읽을 나이가 될 때 쯤, 모두 회당에 가서 토라(모세오경)를 읽으면서 글도 배우고 성경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 살쯤 되면 그 중에서 정말 똑똑한 10%만 남겨두고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 집안일을 돕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이들에게는 토라를 읽을 뿐만 아니라 외우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4년이 지났을 때, 또 다시 그 중 10%만을 남기고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이들은 최고 중의 최고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가장 총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난 후, 랍비는 가장 뛰어난 한 명을 자신의 제자로 삼습니다. 랍비는 이제 제자가 성경을 외울 뿐만 아니라 해석할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지혜를 제자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모든 훈련의 마지막 관문이 바로 광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적게는 20일, 길게는 40일 동안 그곳에 머물다가 돌아오면 사람들은 그를 모든 시련을 이겨낸 사람으로 인정하고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가신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모두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시련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련의 자리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 광야는 통과해야 할 곳입니다.

광야란 황폐한 곳이고 버려진 곳입니다. 버려진 곳에 가면 나도 버려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고독하고 외로워지며 뭐하나 쉬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곳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과 누렸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절망과 부족함, 외로움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맺고 복된 민족을 이루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삭도 광야에서 계속해서 우물을 파며 분쟁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많은 축복을 얻게 됩니다. 야곱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며 거짓된 인생을 살았지만 광야에서 꿈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영광된 이름을 얻게 됩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새로운 존재로서 변화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신 이유도 같습니다. 40일간의 광야체험을 통해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시는 복된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될 때, 마주한 현실을 바라보며 주저앉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1절

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8.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야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를 마주할 때 위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합니다.

시련의 자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로운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도 위기의 순간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에 가셨을 때,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육체와 정신이 지치게 되고 피폐해집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한 뒤, 예수님께서도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 마귀는 예수님께 유혹을 하려고 다가옵니다. 첫째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라는 유

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물의 본래 가치와 본질을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와 물질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시간과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아니라 내 이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4절)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존귀, 영광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창조하신 목적을 잊고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셋째는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며,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는 유혹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10절)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유혹이 있습니까? 인생의 광야는 우선순위를 바로 할 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련의 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장소였습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광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출애굽 시절 40년 동안의 광야생활을 기억하기 위해 장막 절을 지킵니다. 그들은 일주일간 집 마당이나 넓은 들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지냅니다. 불편하고 귀찮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처럼 우리가 통과한 시련의 순간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통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셨던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어려움을 당하실 때마다, 이 광야 체험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40일간 금식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느낄 그 순간에도 오직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셨던 그 때를 생각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겪는 시련들을 통해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될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1면에 이어

특히 센터 부지를 코카콜라와 같은 대형 공장 근처로 선택한 것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하기 위함이다. 이 근처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발 공장 등, 직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

김정석 감독의 사회로 시작된 기공예배는 광림교회 오해일 장로의 기도, 권후원 장로의 성경봉독이 있었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설교를 했다. 잠비아 감리교회 찬양단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이어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콩고 & 잠비아 연회 카삼 감독의 축사와 미국 연합감리교회 GBGM 위원장인 정희수 감독의 격려사가 있었다.

정희수 감독은 '오늘 이 예배는 광림교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 감리교회와 미국연합감리교회와, 잠비아 감리교회, 그리고 아프리카 감리교회가 하나 되는 자리이며, 앞으로 세워질 센터는 선교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케냐 감독회장이자 아프리카 감리교회 연합회 의장인 조셉 감독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미 평탄화 작업과 담장 공사를 마친 센터는 6월 말 공사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 봉헌될 예정이다.

광림교회는 세계 곳곳에 미션센터를 세우고 있다. 미션센터가 선교 허브의 역할을 담당하며 센터를 중심으로 현지에 교회를 개척하는 방식의 선교를 하고 있다. 모스크바에 세

워진 광림미션센터는 한인들을 위한 모스크바 광림교회 뿐만 아니라, 러시아 감리교회, 고려인 교회, 선교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센터는 교회 개척 후보지를 리서치하며 곳곳에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있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 칼리닌그라드, 사트가 등에 교회를 세웠다. 동북아 선교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광림미션센터의 봉헌을 앞두고 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도 2개의 미션센터를 세웠으며, 일본, 뉴질랜드, 베트남 등 현재 9개국에 10개의 미션센터가 세워졌다. 잠비아 광림미션센터는 11번째 미션센터이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포토 뉴스



호렙산 기도회 주제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라" (시 36:9)



호렙산 기도회 사회봉사관 앞 거리에 호렙산 기도회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호렙산 기도회 간증문 본당 계단에 성도들의 호렙산 간증문이 게시되었다.

담임목사 동정



- 6/13-17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기공예배
- 6/20 서울남연회부흥단 교역자 영성수련회 개최예배
- 6/21 군선교정책포럼 CBS TV 파워인터뷰
- 6/23 육사 신우회
- 6/26 한국군선교50주년 회년대회 군선교 50주년기념 유공자(교회) 표창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잠비아감리교회찬양단의 찬양

예수님과 함께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청장년1부>



우리 사회에 싱글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 내 미혼 세대가 약 848만명이고, 점점 더 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결혼은 필수보다 선택이고, 전통적 규범보다 자유로운 삶과 자기 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욕구도 강합니다.

몇 해 전 이슈였던 YOLO(You only live once)라는 말처럼 자기 인생의 주인이 곧 나라고 여기는 무의식이 그들 안에서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자신을 주인이라 여겼던 이들이 점점 교회로 몰려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막연한 삶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릴 적 들었던 교회학교의 말씀이 떠올러지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기억들이 교회로 향하게 합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2019년 연말, 기존 청년부에서 35세 이상의

청년이 분리되면서 청장년부 안에 미혼, 기혼 세대를 위한 공동체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2월, 코로나 광풍이 한국에 몰아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올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싱글분들은 주변의 우려와 걱정 때문에 더더욱 교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혼, 기혼이 함께 청장년부 공동체 생활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22년 5월 2째주, 싱글세대를 위해 '청장 1부 요셉 공동체', 기혼세대를 위해 '청장 2부 다윗 공동체'라고 이름을 구분, 변경해서 따로 공동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 세우기'라는 기존 청장년 2부 비전과 다르게, 청장년 1부는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람되기'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인정과

재력이 있지만, 깊은 고독감과 외로움 때문에 더 깊은 고통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전인적인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를 통해 가정과 직장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예수님과 같이할 때 나를 더욱 가치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청장년 1부는 아직 걸음마 단계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매주 새가족이 옵니다. 스스로 오시기도, 길거리 전도되어 오시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소개했을 때 바로 참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매주 찬양과 기도, 말씀을 나누고 속회를 통해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 진행 중인 호렙산 기도회의 감동을 SNS로 함께 나누며 내 삶의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람으로 더 성장할 것을 기대합니다.

유용찬 목사(청장년부)





‘여호와 이레’로 응답주신 하나님!

2022년 6월 2일, 아들을 지지해준 선거의 득표율을 확인했습니다. 58.97%. 당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아들이 정치 성향이 다른 지역임에도 성남시 시의원 중 득표율 1위, 지역구 출마 시의원 중 최연소로 당선 되었습니다.

정치 배경이나 지위, 금전, 조직, 역량 등 내세울 것도 없었지만 손자를 위해 매일 3번 기도하시는 할머니, 아들을 위해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던 우리 부부와 누나, 입당원서를 써 준 많은 친척들, 격려해주신 여러 교회 식구들의 중보 기도 덕분에였습니다. 에스더 선교회 단톡방에 당선 사실을 알리니,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은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광림남교회 교육전도사로 쉴 틈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기도하며 목회와 정치 사이에서 고민하다 일단 마음이 끌리는 것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정당의 요청이 있었고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다행히 아들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좋은 분들을 예비해두셨습니다. 아들은 연속된 선거를 치르며 손이 부르토고, 강추위에 몸을 떨면서도 열심히 선거유세를 했습니다. 힘든 날이 다 지나간 후, “아빠, 됐어! 됐어!”라고 외치던 아들의 목소리가 지금도 선합니다. 눈물이 절로 흘렀고 땀 듯이 기뻐했습니다.

“지금 줄 터이니

저는 광림교회를 10년동안 다니면서 한 번도 호렙산에 참여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성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20년 동안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이란 것이 누군가 가로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자꾸 일이 막혀갔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취직을 하여 직장을 다니던 남편은 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2~3개월 만에 회사에서 퇴직 통보를 받았습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던 중, 속회 식구들에게 고민을 털어 놓게 되었고 속회 식구들이 호렙산 기도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호렙산 새벽기도는 기도의 힘이 있으니 한 번 참여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으니 호렙산 새벽기도를 하면서 매달렸습다. ‘우리 가족 밥 먹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를 계속하면서 있던 중 어느 날 눈물이 나와 기도 내내 울고, 어떤 날은 복음성가를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시기도 하였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있던 중 일주일이 지났을까? 저에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줄 터이니 불평불만 말아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껏 불평 불만하면서 살았구나’ 반성하며 회개한 다음 날 남편이 이는 지인이 이력서를 가지고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길로 취직이 되어 불만 없

한민선 권사(18교구)



Break through Darkness into Light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라



“불평불만 말아라”

이 회사를 지금껏 잘 다니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할 때마다 ‘여보 하나님이 불평불만 하지 말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호렙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했는데도 코로나로 종종 기도도 안 하고 ‘올해 호렙산은 쉬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즈음, 또 잠을 못 자는 일이 생겼습니다. 분양 받은 상가의 이자가 붙어오면서 감당 할 수 없어 저금했던 돈도 이자로 다 나가고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속회 식구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였습니다. 또 전에 어려움이 있었던 때 처럼 숨이 막힐 때 심방 오신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기도 부탁드리며 6개월 동안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자 감당이 안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 ‘나라도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여 전공을 살려 학원 자리도 알아봤습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하며 호렙산 기도를 준비하던 중에 학원도 찾게 되어 일할 수 있게 되면서 호렙산 기도 이틀 전 상가 임대계약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지금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며 34회 호렙산 새벽 기도회를 다시 뜨겁게 오르고 있습니다. 첫째 날 담임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원정연 권사(51교구)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2016년도 9월에 처음 광림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이듬해부터 호렙산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개인을 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에 매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회에 가는 발걸음이 행복합니다.

호렙산 기도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제보물인 딸 나연이와 아들 현구가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였는데, 드디어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는 고3 수험생이라 교회 나오라고 권하기 미안 했지만, 교회만 다닐 수 있으면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란 믿음으로 전도했습니다. 드디어 나연이와 현구가 지난 4월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대학에 입학한 딸과 아들이 각자 알아서 주일예배에 나오고 세례까지 받은 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또 제가 늦은 나이에 연기자의 길로 도전하게 됐습니다. 매일 기도드렸던 드라마 작품에 출연했고 보물 1호, 2호에게 연기자로 도전하는 멋진 배우 엄마의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도전하는 중입니다.

서정우 집사(24교구)

기도하면 가장 좋은 때에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몇 년 동안 호렙산 기도회 때마다 울며 기도하고, 왜 빨리 응답을 안 주시냐며 투정도 많이 부렸던 일을 생각하니 웃음이 납니다.

힘들었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광림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광림교회는 제 생명의 은인이네요.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너무 큰소리로 답해서 저 자신도 깜짝 놀라지만 은혜받으며 행복함 느끼는 호렙산 기도회.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호렙산 기도회...

이번에도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모두 다 응답받는 소망을 꿈꾸며 광림의 가족분들 모두 파이팅!! 파이팅!! 올해도 응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9)



목회현장

나는 어떤 부모로 기억될까?



조성한 목사(7선교구)

지난 5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신 한 권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 입관예식을 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도착했는데 유족 중 한 분이 저에게 잠깐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당신이 기억하는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다고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딸이 기억하고 있는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분, 믿음의 세대 계승을 최고의 유산으로 남겨 주신 분이셨습니다. 천국으로 이사하신 권사님은 1931년 함흥에서 태어나셔서 일찍이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어머니를 본받아 평생을 믿음으로 사셨으며, 50년 동안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시면서 자녀들에게 부부로 나이 들어감에 대해 귀감이 되셨고 슬하에 1남 2녀의 자녀들과 여섯 명의 손주들, 두 명의 증손주에게 아낌없는 헌신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믿음의 여장부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고스란히 기억하며 교회와 함께 역사의 내용을 몸과 마음에 담으셨고, 노년에는 지팡이를 짚고 예배당에 오셨던 교회 사랑과 주님 사랑의 본이 되신 어머니로 자녀들에게 아주 세세히 기억되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의 장례를 통해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어머니처럼 신앙생활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천국에서 반갑게 부모님을 만나 뵙겠다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던 천국 환송잔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심방을 하다 보면 부모님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의 추억 중 공통된 점은 부모님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셨던 것과 신앙의 세대 계승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가 감소하고 있다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청년과 청소년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캄캄하다고들 말합니다.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의 신앙 계승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라는 말만 하며 주저앉아 있을 순 없습니다. 우리 광림의 제단과 광림의 교우들이 신앙의 온전한 세대 계승을 이루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 회복과 부흥의 진원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광림남교회

〈새가족 영성투어〉 본당, 광림수도원 방문



지난 5월 26일(목), 2021년부터 2022년 기간동안 광림남교회 새가족 등록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새가족 영성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새가족 위원장으로 섬긴지 4년차, 개인적으로는 아직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

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 새가족 교육도 새롭게 계획하고 감동과 재미를 주는 교육과정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 속에 사역의 정체성과 방향을 잡고 올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새가족 영성투어를 통해 본당과 광림수도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새가족 분들은 역사비전홀을 방문하여 광림교회의 역사를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알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외 선교 현황을 보면서 광림교회의 비전을 나누고 함께 동참할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현장에서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한 새가족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위원장으로서 뜻깊고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소꿉같은 즐겁고도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새가족 위원장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십자가의 구원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담겨져 있는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을 이번 새가족 영성투어를 통해 깨닫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음 기회 때는 더 많은 새가족이 참여하여 광림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하고 행복한 자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또한 2022년 호렙산 기도회의 긴 여정 속에 반드시 승리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시길 기도합니다.

☙ 고재만 집사(광림남교회)

4선교구 속회

생명의 빛이 흘러가는 연합공동체



하나님의 성전 광림의 너른 텃밭에 심겨진 어린 감람나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4선교구는 호렙산 기도회 기간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애찬관에서 연합속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연합속회 때는 생후 60일이 된 지수(김시내 이주철 집사님 둘째 딸)가 생애 첫 예배를

호렙산 기도회에서 드리면서 함께 속회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구 모든 성도들의 축복을 듬뿍 받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고, 육신의 어려움을 극복하신 박영노 장로님께서 살아있는 회복의 증인으로 대표기도를 맡아 주셔서 큰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불어 매주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기타, 오카리나, 색소폰 등의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4선교구 속회를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결단이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잠비아 우물봉헌과 동탄성전 씨앗 예물은 4선교구를 통하여 생명의 물이 흘러가게 하신 귀한 간증이며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번 호렙산 연합속회를 통하여 4선교구 199개의 속회가 속회의 현장을 비롯하여 가정, 사업장이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 끝이라 믿고 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4선교구 화이팅.

☙ 최정순 권사(10교구)

6선교구 속회

다시 성령의 바람으로 회복의 은혜 임하기를!



지난 6월 18일(토) 오전 6시, 호렙산 기도회를 마친 6선교구 16, 17, 18교구 80여명의 성도들은 벨엘 성전에서 남성연합속회로 함께 했다. 6선교구는 호렙산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에 연합속회로 모이고 있다. 남성연합속회로 시작한 모임은 예배를 사모하는 6선교구 성도들의 발걸음을 벨엘 성전으로 돌리게 하고 있다. 박중섭 목사는 '입다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

(삿 11:34-40)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고, 매주 연합속회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장작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큰 나무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무를 태워야 합니다. 오히려 나무가 아닌 종이를 태워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하죠. 제34회 호렙산 기도회 첫날 제 마음에 '재건'이란 말이 떠올랐습니다. 허물어진 것을 세우자! 불을 태우자! 우리가 불쏘시개가 되자! 그런 의미로 매주 토요

일 모이고 있습니다. 마치 제1회 호렙산 기도회를 하고 난 후 작은 기도모임이 생겨난 것처럼 속회 선교회마다 기도의 불길이 퍼지고 있습니다.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했다. 찬양인도로 예배를 섬기고 있는 18교구장 박찬규 권사는 "호렙산 기도회 중에는 속회로 모이기 쉽지 않은데 토요일 연합속회로 인해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에게 주신 작은 달란트를 통하여 연합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로 인해 지친 일상이 회복되어가고 있는 이번 호렙산기도회 기간에 6선교구 성도들은 연합속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몸 된 교회에 더욱 헌신하기를 다짐했다.

☙ 백명순 기자

“다음세대 부흥의 불씨를 살려라!”

<2022 LFC 광림 청년부 제15회 국내교육선교>



2022년도 여름, 광림교회 청년부에서는 15회차를 맞은 국내교육선교를 진행합니다. 상반기 동안 예배와 속회를 통해 본질을 지켜왔던 청년부는 하반기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미자립교회 다음세대들의 신앙 회복과 교회학교 부흥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는 이번 여름교육선교는 전국 12개 지역, 100개 교회, 1,200명의 아이들을 품은 250명의 청년들이 참여합니다. 교육선교는 총 7차로 진행되는 데, 7월 21일(목) 1차 세종을 시작으로, 태백, 가평, 대전서북, 충주, 순창, 이천, 남양주, 광주하남, 대구, 고성, 천안남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현재, 지방의 지역교회에서



특히 큰 어려움을 마주한 교회학교는 여름성경학교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때 청년들이 한 달간 준비한 말씀과 찬양, 공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으로 흩어집니다. 이를 위해 청년부는 6~7월 두 달간 교구와 속회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6월 25부터 7월 9일까지 3주간의 토요강습회와 팀모임을 통해 집중적으로 선교를 준비합니다.

대구지역팀장으로 섬기게 된 서준영 형제는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지역의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선교를 준비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주님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짐을 체험하는 귀한 선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할 지혜와 순종할 용기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라고 전해왔고, 태백지역팀장으로 섬

기는 정예영 자매는 “함께하는 팀원들의 절반은 휴가, 건강 등이 어려운 여러 상황으로 교육선교에 함께 할 여건이 되지 않는 청년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믿음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교육선교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성장과 간증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LFC 광림 청년부를 통해 지역의 교회들마다 교회학교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번 여름,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가게신 하나님을 만나며, 청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가족과 함께 오르는 호렙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전에 나와 기도로 믿음의 가정 세우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는 이번 호렙산에 많은 광림의 가족들이 참석하여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있다.

광림교회 교회학교에서는 호렙산 기도회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오르는 호렙산>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새벽 부모와 자녀가 함께 호렙산에 오르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오르는 호렙산>은 기도회가 열리는 6월 6일부터 7월 15일 까지 매주 토요일 새벽 4시 45분 본당 3층에서 진행된다. 기도회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 호렙산에 오르며 배부받은 동반일지에 출석 인증 도장을 받고 본당 로비의 포토존에서 인

증사진을 남겨 보관한다. 모든 미션을 마치면 각 부서에서 자랑스러운 동반대원 패치를 받게 된다. 출석 도장은 본당 로비와 사회봉사관 구름다리에서 받을 수 있다.

특히 마지막 주 토요일인 7월 9일에는 교사, 학부모, 교역자, 학생들의 교회학교 특송이 있을 예정이다. 또, 이날 기도회 후에는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안수 기도회가 열린다.

청장년부에서도 기도회 기간 중 매주 토요일과 호렙산의 마지막 날 교회 내에서 포토미션을 진행한다. 6월 11일에는 기도 제목 작성 후 로비에 있는 '기도의 벽'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 18일에는 밀레니엄 광장에서 '어둠

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라' 현수막 앞에서 사진찍기, 25일에는 밀레니엄 광장에서 '즐거운 우리 집' 동상 앞에서 사진찍기, 7월 2일에는 본당 로비에서 '웃으시는 예수님' 그림 앞에서 사진찍기, 7월 9일에는 소망 사진관에서 가족, 친구, 숙원들과 함께 사진 찍기, 호렙산 기도회 마지막 날에는 성찬식에 참여한 후 본당에서 사진찍기 미션에 참여할 수 있다. 모든 사진은 무료로 1장씩 인화할 수 있으며, 소망 사진관 촬영만 선교 후원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유료로 촬영된다.

“이른 새벽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회에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이 새벽 예배 시간을 기다립니다. 예배 시간에 부른 찬양을 기억하고 집에서도 따라 하는 모습이 은혜롭습니다.” (5교구 오솔샘 집사)

“작년에 교회학교에서 뱃지모으는 미션을 통해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호렙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 은혜가 되어 올해에도 자연스럽게 호렙산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호렙산 기도회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5교구 박정운 집사)

박희윤 기자

신앙 간증

일상의 삶에서 보는 에벤에셀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3교구에서 속장으로 섬기고 있는 서영창이라고 합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제게 좋은 기회를 허락 해주셔서 작년 7월부터, 1년짜리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의 장 역할을 맡아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였기에 꼭 맡고 싶었지만, 막상 맡고 나니 혼자서 몰려다니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른 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혼자 고민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조직의 리더를 키우기 위한 좋은 커리큘럼을 회사를 통해 제공해 주심과 더불어 과거 사역에서 리더로 이끌 때의 여러 경험들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과거 사역팀들의 일련의 경험과 회사의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있으며,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지금도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팀장으로서 조직원들을 이끌면서 리더십과 운영, 관리법을 배울 수 있다는 진귀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고, 조직을 이끌면서 감정 상황 일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스스로를 다잡아서 정서적으로 튼튼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셨으며, 한편으로는 주변에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한편 조직 내에서 중요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뜻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연초에 대규모 국제 전시회가 있어서 참가신청을 냈다가 탈락하게 해주셨으며, 그를 통해 그 전시회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받아들이기 힘든 뜻을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동행해 주시면서 제공해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의 큰 방향성을 향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에벤에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벤에셀은 신앙생활과 관련된 단어인 줄 알았으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오히려 더욱 명료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상 속에서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신앙이 없었다면 그저 좋은 기회와 성장의 시기로 기억되었을 1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것을 주시고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신 1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게 해주셨고, 이후로도 에벤에셀, 동행하여 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창 속장(청년부)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11



▲ 가나의 혼인 잔치_ 이 작품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가나의 혼인 잔치'를 표현한 것으로, 그림 오른쪽의 노란 옷을 입은 하인이 하객에게 물병을 따르고 있다. 그 옆에 놀라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뜻하며, 이 장면이 가나의 기적을 나타낸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처럼 평범한 혼인 잔치를 묘사한 것은 아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미술가 중의 한 명인 파올로 베로네세는 종교적인 장면을 호사스러운 의식으로 바꿔 놓았다. 그림 속 웅장한 고대 그리스 양식의 건축물에서 결혼식 하객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있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극장에서 공연하는 듯한 모습이다. 신랑과 신부는 그림 왼쪽에 앉아 있고, 식탁의 중앙에 후광에 싸인 예수가 앉아 있다. 베네치아의 상류층 복장을 한 하객들은 물론 터번을 쓴 사람, 동양인 등 등장인물이 100명이 넘는데, 당시 상업 도시로 발달한 베네치아에 세계 각지에서 몰려오던 상황을 표현했다. 또한, 당시 베네치아의 유명한 인물들을 작품 속에 등장시켰는데, 예수 앞에서 연주하는 네 명, 곧 티치아노는 비올로네, 틸토레토는 바이올린, 바싸노는 코넷, 베로세네는 비올라를 연주하고 있다. 네 명의 음악가들 사이에 있는 모래시계는 물질적인 쾌락은 순간이라는 것을 암시하며, 예수의 머리 위로 하인들이 고기를 자르고 있는 모습은 앞으로 있을 예수의 고난을 상징한다. 베로네세는 식사하는 장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암시했다. 파올로 베로세네의 작품.

가나의 혼인 잔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향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 요한복음 2장 7-11절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광야를 떠나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 나사렛 인근 마을인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다. 신랑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었다. 많은 손님이 초대되었고 예수도 제자들과 함께 초청되었다. 유대의 결혼 풍습은 손님들이 신랑 집에서 먹고 마시며 결혼을 축하해주는 잔치가 며칠씩 계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랑 집은 많은 손님으로 붐볐다. 그들은 모두 포도주에 취해 흥겨워했다. 그런데 결혼을 축하하는 손님들이 늘어나자 준비해 두었던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일 났습니다. 포도주 향아리가 비었습니다.” 하인의 보고를 받은 마리아는 난감해졌다. 걱정스러웠던 마리아는 예수를 보았다.

◀ 가나의 기적 _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을 체험한 하객들이 크게 놀라워하는 장면을 묘사했다. 조르조 바사리의 작품.

“예수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는 말뜻을 알아들었다.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닙니다. 재촉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을 불러 말했다. “이분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시키는 대로 하여라.”

깊은 사색에 잠겨 있던 예수는 하인에게 지시 하였다. “여섯 개의 저 돌 향아리마다 모두 물을 가득히 부어라.”

큰 용량의 돌 향아리는 항상 맑은 물을 담아 두어 손님이 오면 흠먼지 묻은 발과 손을 씻을 수 있게 하는 물 향아리였다. 예수의 지시에 하인들은 돌 향아리 가득 물을 길어다 채웠다. 하인들이 예수가 시키는 대로 여섯 향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했다. “이제 이 물을 그릇에 떠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주어라.”

하인들이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주었더니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이제야 나오다니!” 그것도 전에 마시던 것보다 더 질이 좋아서 연회를 책임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보통 좋은 술은 먼저 내놓고 나중에는 덜 좋은 술을 내놓는 법인데 아직도 좋은 술을 남겨뒀구려!” 예수의 첫 번째 기적은 결혼식 하객들을 기쁘게 하였다. 제자들은 놀라워하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 광림뉴스레터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